

성자 밀라레빠는 극락에 왕성한 보살입니다. 티베트의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는 극락세계 상품보살의 후신입니다. 보살이 남성부주에 여러 번 생을 받아와 붓다(붓다는 삼계의 법왕이다)를 이루는데 있어 억겁다생의 업장과 습기, 악연 그리고 탐·진·치 삼독의 뿌리가 녹아져서, 락 끝 만큼이라도 그 찌꺼기가 남아 있으면, 불신(佛身)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불과(佛果)를 증할 수 없습니다.

불신은 열반광(무량광)이라고 하는 빛으로 이루어집니다. 붓다는 빛으로 재입니다. 빛이시기에 삼세의 여래는 일체가 동일합니다. 한 티끌 한 생각, 이 갑습니다. 불과를 증한 이는 거짓 몸종이와 네 가지 영체가 모두 빛덩이가 되어 자기 불신과 결합합니다. 더 깊은 밑층은 여래의 밀장(密藏)이기에 합구합니다. 불신을 이룬 빛은 삼천大千세계를 두루 비춥니다. 변조광명입니다. 비로자나 법신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새벽 별을 보고 깨쳐 붓다가 되었다 합니다. 이 말은 선가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깨쳐서 확립대오 했다 해서 붓다라 할 수 없습니다. 금강불교(金剛不壞)의 불신을 얻어 비로소 붓다입니다. 오랜 기간 여러 관문을

통과해서 불신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오견성은 아라한 자리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불신은 백천만의 화신을 나눌 수 있습니다. 백천삼매, 나아가 해인삼매, 대적정삼매를 자제하시고 팔만사천 신통을 구축합니다. 지혜와 복덕, 자비 자체가 됩니다. 현신할 때의 본불신은 32상80종호그 이상입니다. 그 모습과 일거수 일투족은 자비의 극치이며, 한 순간 킁기만 해도 삼재와 업장이 소멸되는 선정자재이십니다. 교종에서는 이 몸을 보신(報身)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불신은 법신과 보신을 합친 개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부,

무아속 삼매들면 佛果 증득

마음속까지 비추는 그런 빛으로 이루어졌고, 대적정삼매에 항상 들어 계심으로 미래제가 다하도록 멸도할 수 없습니다. 붓다 이론 이가 홀 속덜할 때에는 백천의 신장님들이 앞뒤를 호위하는 공경은 장관입니다. 부처님만이 소위 법신, 보신, 화신 등 삼신을 구축하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삼계의 지존이자 남성부주의 대교주이시며, 구원심성 최초불(久遠實成 最初佛)이십니다. 그후 수보리, 사리불 존자 두 분께서 처음으로 불과를 증득하셨습니다. 한 분의 아라한, 보살을 내는데 있어 절대적인 공이 있는 사람은, 지옥과 축생 업을 벗고 곧 천상에

납니다. 하물며 불과를 증한 대성자가 이 땅에 출세함에 있어 큰 공을 세운 이는 극락까지 왕생할 수 있습니다. 이 대성자에게는 무한한 권능이 주어 집니다.

어려본, 윤회고를 벗어나 도를 이루려면 첫째 계율, 그 중에서도 '음행'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성불은 불가능합니다. 설사 도를 이루어 보일중인 수행자라도 음행을 무애(無碍)로 보아 저질렀다면, 마치 한 컵의 물에 퐁퐁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물을 마실 수 없는 것처럼 만사가 무위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자는 마장을 막아줄 수 있는 대선지식 밑에서 공부해 해야 합니다. 또한 효를 다하고 공부 이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금강경 같은 대승 경전을 독송하고 진언과 염불을 해야 합니다. 물론 선(禪)으로 결판을 내십시오. 목숨 때놓고 공부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비어라 비어라 삼천대천 세계가 비어라. 먼지하나 티끌하나 없는 공의 세계 맑고 깨끗한 청정세계 환희 환희 환희 그 자체인 것을. (만현스님의 '대적정삼매증' 중에서)

정리=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기자가 본 만현 스님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춘천댐 상류 풍광 좋은 곳에 위치한 아담한 절 현지사는 2년전 새로 지은 현대식 사찰이었다.

제방의 선원과 토굴에서 오랫동안 수행에만 매진해오다 3년전부터 이곳에서 법을 펴고 있는 현지사 회주 만현(滿顯) 스님은 아직 불교계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이다. 하지만 최근 춘천 불교방송을 통해 스님의 법문이 전파를 타면서 법을 구하는 출· 재가 수행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었다.

스님의 방송 설법은 율해로 세 번째인데, 방송이 나갈 때마다 금강해 하는 불자들의 전화가 방송국과 신문사로 쇄도하고 했다. 그만큼 만현 스님의 법문은 어느 절에서도 듣기 힘든, 체험해서 우러난 진솔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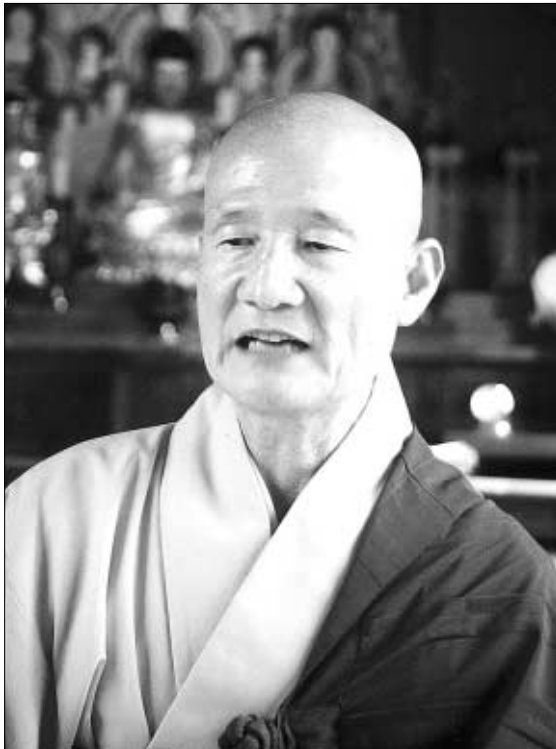
만현 스님이 강조하는 법문은 '견성은 부처되는 공부의 시지일 뿐이며, 견성만이라도 계율을 철저히 지키고 부처님과 불법을 모독하는 말을 삼가야 한다'는 말씀이다. 특히 스님들의 경우 '사음'은 금기해야 하며, 참선 수행을

남다른 체험서 우러난 진솔한 법문

통해 견성한 이들은 '극락과 지옥이 없다'고 하는 등 경전에 어긋나는 말을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만현 스님은 수행법과 관련해서는 간화선 수행 못지 않게 위빠사나, 밀교 수행법을 높이 평가하면서 열팔선을 권하신다. 성불(成佛)에 대한 견해도 독특하다. 수행자가 남· 북방의 다양한 수행법으로 깨달아도 아라한과(果) 이상은 증득하지 못한다고 한다. 진정한 붓다가 되기 위해서는 보살에 이어 불신(佛身)과 하나되는 더욱 더 어려운 공부과정이 남아있다는 설법이다.

1960년 부산 선암사에서 출사인 석암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만현스님은 통도사 경봉 선사 문하에서 화두 공부를 했으며, 조계종 총무원 교무, 포교, 재무부장 등을 역임했다. 동산반야회 발주인 무진장 스님과 함께 조계종 중앙상임포교사로서 전국에서 설법했으며 해동불교대학 학장을 맡아 재가자 포교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20여년전부터는 만행과 토굴 수행 등으로 오로지 성불을 향한 일념으로 매진해 왔다. 비구, 비구니 제자 8명을 지도하는 한편 69세의 세수에도 매일 깊은 삼매에 들어 정진의 끈을 늦추지 않고 계시다.



◇출가이후 45년여동안 계율을 생형처럼 지켜온 만현스님은 지계를 바탕으로 참선, 염불, 경전 독송할 것을 권한다.

“공덕 쌓고 온갖 마장 극복해도 부처님法 능멸하고 음행하면 중지옥·무간지옥으로 떨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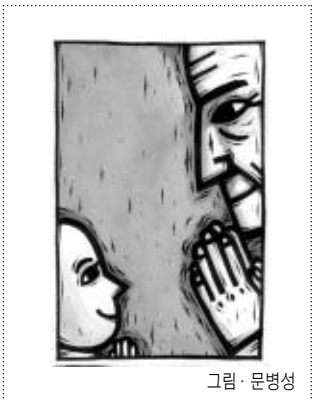
현원스님의 스님이야기

해각스님

어린 사미승에게까지 늘 경어를 했던 분이 바로 해각(德覺) 노스님이다.

1976년 당시 표충사에 강원이 있었다. 40여 어린 승려들이 율장광망 모여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며 살았다. 자연히 수계를 먼저 받은 스님, 절에 하루라도 먼저 들어온 사람으로 위계 질서가 정해졌다. 그러다 보니 한살이라도 많은 사형들이 큰 이유도 없이 어린 사제들에게 매일처럼 기함을 주었다(뜻살게 없었다). 어린 나이에 공부한답시고 학교도 어머니의 자애로운 손길도 모두 포기하고 출가수행자의 길에 접어들었는데 그러도 섭렵지 남모르게 눈물을 많이 흘렸다. 몸이 힘든 것은 참을만 했지만 거침없어 날아오는 말이 어린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데 견디기가 없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때 한계암(漢溪庵)에 계시던 해각 스님의 집을 올려 드릴 기회가 있었다. 노스님을 가까이서



그림·문병성

모시게 되니 두려움과 경외감이 교차하는 그 조 심스리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스님은 내가 힘들어 보였는지 나지막한 목소리로 병어리 3년 기머거리 3년의 마음으로 꼭 견디어 내라고 용기를 주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전부가 높임 말로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어린 철부지였고, 승려라는 것 하나 밖에 없었는데 꼭 범명 뒤에 스님이라고 불러 주시는 것이었다. 존대하는 말을 듣다보니 편안한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그간고만한 토굴 속에서도 좌공우물 힘겹게 살아간 내게 마냥 훈자서라도 좋아 할 수 있는 스님이 계시는 것 하나만으로도 어려운 절집의 시집살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 그 뒤로 스님이 계시는 암자에 자주 올라가 보였는데 그때마다 어린 고사리손을 꼭 잡으시고 스님의 자랑거리를 한보따리 풀어놓으셨다. 당시 스님께선 이름난 단청장(丹靑面)이었다. 나라에서 부여하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단청장. 그러나 스님은 승려에게는 그런 직함이 안 어

울린다고 한사코 거부하셨다. 해각 스님께선 신문이나 그림, 우표, 옛날 돈 등을 소중히 모으셨다. 나중엔 그것들로 병풍을 만들어서 독특한 예술세계를 조성하기도 했다. 이렇게 수집한 것들을 나중에 모두 통도사 성보박물관에 기증하셨다. 돈으로는 도저히 측량이 불가능한 역사적 자료 큰 절통도사에서도 귀하게 여겨 지금도 박물관에서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스님은 참 자상하셨다. 오래된 작품들을 보여 주셨을 뿐 아니라 단청에 대해서도 자상하게 설명해 주셨다. 스님께선 또 겸소함을 원칙으로 생활하셨다. 얼음이 두껍게 얼었던 폭포위 암자에서 겨울을 나셨던 스님. 나는 썰과 마른 누룽지 한푼대를 올려드리곤 했는데, 스님은 누룽지를 물에 불려서 끼니를 때우곤 하셨다. 늘 누룽지를 드시는 스님에게 어느날 내가 "누룽지가 맛있으세요?" 묻자 스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수행자는 절대 살이 찌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셨다.

스님께선 후학들을 길러내는데도 열심이었다. 삼작인 동원 스님은 지금도 사명암에 주석하면서 불화와 큰 절들의 단청을 해주시는데 미적 감각이 유난히 빼어나다.

내가 1978년 통도사 강원으로 공부하려 갔을 때 해각 노스님께서도 연로하셔서 통도사에 주

어린 사미승에게도 늘 높임말

이름난 단청장...겸소함 철저

석하고 계셨다. 스님은 강원에서 수학하는 후배들의 모범이었다. 통도사 무풍한송(舞風寒松) 속을 험하게 걸어나다시던 스님의 모습이 너무나 기상차 확인들은 우러러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당시의 자동차가 많이 없어, 무슨 일이 생기면 젊은 스님들은 택시를 불러타고 나가곤 했는데, 해각 스님은 언제나 걸어 다니셨다. 노스님이 걸으니 젊은 스님들은 택시 타는 것이 죄스러워 아주 화급한 일이 아니면 모두 걸어서 다니기로 결의하는 일까지 생겼다. 후학들을 대견하게 생각하셨던지 스님께서는 일필휘지로 쓰신 불(佛)자를 확인들에게 한 장씩 내려주셨는데 정말로 대단한 명필이었다. 스님께서는 자비하셔서 해각스님의 글을 소장하고픈 스님이나 법호를 듣고 찾아오는 일반인들도 원하는대로 흔쾌하게 스님의 글을 빌을 수 있었다.

포교당에서 살아보면 많은 이들을 만난다. 머리를 깎고 있는 한, 아무리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만나도 누구에게나 경어를 쓰려고 노력하는데 이것은 모두 해각 노스님에게서 받은 영향이다. 요즘 세속의 말들이 너무 거칠다. 서로를 배려하는 경어(敬語) 이 사바세계를 따뜻하게 원만하게 하는 마지막 보루가 아닐까.

■본당 연화사 주지

승복 법복 인니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먹물, 마직	적삼·바지 : 150,000 동방·바지 : 180,000 두루막 : 150,000
2. 무명 수재·한국산 먹물 염색	적삼·바지 : 180,000 동방·바지 : 220,000 두루막 : 180,000
3. 모시론 (풀 안해도 됨)	적삼·바지 : 150,000 동방·바지 : 180,000 두루막 : 150,000
4. 면 래우사 특징·세탁시 풀 안해도 됨	적삼·바지 : 130,000 동방·바지 : 160,000 두루막 : 130,000
5. 장삼 특징·가볍고 통풍이 잘됨	모직 : 180,000 ~ 250,000 염머플 : 200,000
6. 신도복 (단체주문받습니다)	조끼·바지(모직회색) : 60,000
7. 셔츠(차이나 라운드) · 걸망 · 손가방	

◆유사제품과 비교해 모십시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지미절 중앙로역 3번출구역(동이백외검 병행 입구)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정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판매점 모집)

키신은 속셔도 사주팔자는 못 속인다.

스님, 법사님, 보살님 여러분!
신도님들의 사주상담시에 <용신 잡는법>문제로 얼마나 골치가 아프십니까? 여기 여러분의 골치거리를 말끔하게 해소시켜 줄 명리비결이 있습니다. 이를 습득하는데는 많은 지식과 공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글과 덧셈, 뺄셈, 곱셈만 알면 누구든 쉽고도 빠르게 용신을 찾을 수 있도록 본서는 명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약간의 공부로 명리학의 대가 가 될수 있음을 자신있게 알려 드립니다.
또한, 본서를 공부하면, 여러분들의 신도님들 인생상담은 물론, 불사를 일으키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것을 확인합니다.

◆서적명: **최신팔자명리학 비결**
◆규격: A-4 용지, 620 페이지
◆저자: 오산 정대균
◆가격: 220,000원
◆구입방법: 하기 계좌로 입금하시고 전화를 주시면 택배로 우송함
◆기타사항: 본서내에는 <용신잡는법> 이외에 각종 최고수준의 사주문서 비결들이 담겨져있음
계좌번호: **국민 765202-04-019996**
농협 170202-56-037616
예금주: 정대균

그외, 본서의 비결들을 단기간에 전부 습득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하여 본연구소에서는 1개월 과정의 **지지 직강의 강의를 8월 1일부터 실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수강신청 바랍니다.

www.sazoopalza.com
오산 팔자 심리학 연구소
서울시 대림 3동 779-15호 **한글인터넷 주소: "사주 팔자닷컴"**
전화: **02-831-0055**(대표)
H·P 011-208-0051 FAX 02-831-0058

관절염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관절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쉬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림 남습진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응(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한인제약(株)

사찰, 법당, 앰프 설치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에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않습니다)

소리공양 실적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시설 설치.
1500여 사찰에 무선 마이크 및 각종 마이크 공급.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